

#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 막바지

### 임실군, 산림휴양림 내 숲속의 집·야영지원센터·야영사이트 등 갖춰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 성수산에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에 이어 휴양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이 들어선다.

군은 성수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숲과 상생하는 맑고 아름다운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휴양림 내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국·도·군비로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숲속의 집 5동, 야영

지원센터 1동, 야영사이트 5개소 등을 조성한 가운데 현재는 조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은 국내에는 보기 드문 세모형 집과 매립형 야영 지원센터다.

건물 형태에 따라 이름 붙여진 세모의 집과 네모의 집은 각각 23평과 15평으로 최대 6인까지 수용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타기관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매입하여 휴양림 본관 신축과 평강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해 끝마쳤다.

휴양림의 경우에는 4인실부터 8인실

까지 다양한 크기의 총 17개의 객실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대로 함께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10월 역사와 문화, 생태교육의 장인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을 개장했다.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14면), 카리반(6동), 캐빈하우스(4동)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되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변에는 북카페와 잔디광장, 숲속 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교육의 겸비한 다양한 즐길거리로 캠핑족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군은 특히 2025년 임실방문의 해를 앞두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까지 최종 마무리되면 산림휴양림과 국민여가캠핑장, 야영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녹색 관광지로서 성수산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왕의 전설이 서린 성수산에 초록빛 힐링을 선사할 숲속야영장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쯤에는 개장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성수산이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이 담긴 산림휴양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 전경. (사진=임실군청 제공)

## 순창군, 교육부 공모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박차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순창군이 교육부에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공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군, 교육지원청, TF 추진단, 학교 및 연구용역 기관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순창군의 대표 산업인 발효산업의 연계 전략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유학 브랜드화를 통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구상 및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지정 추진을 위해 순창교육지원청과 수 차례 업무 간담회를 통해 사업과제를 논의했고 지난 3월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순창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난 3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간 상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 발전 방안 및 취·창업지원, 정주인구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민주평통, 올 2분기 정기회의

### 자유민주주의 직면한 위기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서애숙)는 지난 24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정책건의를 위한 자문위원 토론 및 설문지 작성, 협의회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24일 한스경제 및 ESG행복경제연구소 주최한 제5회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전북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남원, ESG 코리아 어워즈 전북 지자체 부문 '대상'

### 친환경자동차 보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높은 평가

남원시는 24일 한스경제 및 ESG행복경제연구소 주최한 제5회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전북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SG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분야 106개 항목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추구에 우수한 지자체 및 기업에 시상한다.

최근에는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남원시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친환경생활 실천 등 환경분야와 보건 및 안전, 경제 사회, 고용 노동 등 사회분야 및 행정정책, 재

정 건전성 효율성 등 지배구조 분야에 책임있는 추진으로 ESG 경영 모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펼치고,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며, 투명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관리로 전국 지자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남원시 환경과 박영재 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원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서울·경기 국내전담 여행사 대상 순창군 관광설명회

순창군(군수 최영일) 출연기관인(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지난 22일과 23일 양 이틀간 서울·경기 지역 국내전담(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순창군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진행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팸투어는 (사)한국대표여행사연합 정후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등 30명이 참석해 순창군 관광설명회와 발효테마파크 시설 관람, 강천산 군립공원 탐방, 힐링트레킹과 족욕, 막걸리 만들기 체험, 옹기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특히, 재단은 순창군의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와 실랜드 프로그램,

추억의 교실 프로그램, 강천산 맨발걷기 행사 등을 적극 설명했으며 문화관광과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과 농업기술과의 농업농촌 치유체험 관광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국내전담 여행사 관계자분들께 순창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소식통

### 돌밭해충적기 방제 참여 당부

임실군이 돌밭해충(갈색날개매미충) 약충기 방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돌밭해충 방제약제를 배부하고 농가들의 적기 방제 참여를 당부했다.

군은 돌밭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4개 과종(복숭아, 사과, 배,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대하여 5월 중 방제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 초·중순에 부화해 약충(1~4령, 70일)이 되고 7월 이후 성충으로 우화하며, 이후 10월 상순까지 산란한 후 생을 마감하는 생활사를 갖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배·복숭아 등의 나뭇가지와 줄기? 잎 등에 붙어 나무의 즙을 빨아 생육을 불량하게 하며,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유발해 농산물에 피해를 주기에 관리를 요하는 해충으로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로 이동 서식하는 특징이 있어 방제 적기에 농경지와 산림지에 동시 방제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디톡스주스 교육생 모집

임실군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디톡스주스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2024년 디톡스주스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가공센터 실습교육장에서 6월 12일부터 19일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작업을 통해 만들어 보는 주스류, 믹서기를 통해 만들어 보는 스무디류, 건강강진을 위해 떠오르고 있는 디톡스 샷 제조 방법까지 총 9종의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톡스주스란 주로 비타민·미네랄·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음료이다.

교육생들은 상황별·증상별 나에게 맞는 디톡스주스 기구 및 재료를 알고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